

원저

## 한방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근골격계 환자 1,472명에 대한 임상적 분석

정호석 · 이한 · 김상주 · 김은석 · 한경완 · 우재혁 · 이준석 · 이슬지 · 유인식

자생한방병원 침구과

### Abstract

#### Clinical Analysis of 1,472 Musculoskeletal Patients Who Visited Emergency Room of Oriental Medicine Hospital

Jung Ho-suk, Lee Han, Kim Sang-joo Kim Eun-seok, Han Kyung-wan, Woo Jae-hyuk, Lee Joon-seok, Lee Seul-ji and Yoo In-sik

Depar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Jaseng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culoskeletal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and provide better first-aid medical service.

**Methods** :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study of 1,472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from June 1st, 2007 to May 31st, 2010.

**Results** : Of 1,472 total patients, the male to female ratio was 1.06:1 and people in their 30s were the peak age group. The majority of patients visited the emergency room between 10:00 to 24:00(midnight). Most patients visited the emergency room from Saturday to Sunday. By monthly distribution, the patients increased slightly during February, April, September and October. The majority of patients visited the emergency room within 24hours of onset. The patient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 low back pain 64.81%, cervical pain 11.82%, ankle pain 10.67%. 27.51% of patients used stretcher cars when visiting the emergency room. The admission rate was 22.96%.

**Conclusions** : Of the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n Oriental hospital, low back pain, cervical pain and ankle pain was the most frequent, in this order. By meticulously preparing for the continued increase in musculoskeletal treatment demand, we can further assist and speed the spe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Key words** : Clinical analysis, musculoskeletal, emergency room, oriental medicine hospital

· 접수 : 2010. 9. 10. · 수정 : 2010. 10. 1. · 채택 : 2010. 10. 5.  
· 교신저자 : 유인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5번지 자생한방병원 침구과  
Tel. 02-1577-0006 E-mail : 12theo@naver.com

## I. 서론

현행법상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sup>1)</sup>. 그러나 현행 의료제도상 환자의 선택으로 응급실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즉시 의학적 처치를 원하는 경우<sup>2)</sup>나 사회적인 이유로 진료시간에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다<sup>3)</sup>.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즉시 치료받기를 원하면 누구나 응급환자라 할 수 있으며<sup>4)</sup>, 응급실은 환자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내내 항상 의료 각 분야에 걸쳐 효율적·전인적인 응급치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sup>5)</sup>.

한의학에서 응급질환이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급성 병증으로 고대에는 흔히 暴疾, 卒病이라 칭하였으며, 발병이 급박하고 변화가 신속하며 病程이 위중하고 병세가 험악한 일련의 병증을 가리킨다<sup>6)</sup>.

양방병원의 응급실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산업재해환자, 각종 약물중독환자 및 급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sup>7)</sup> 한방병원의 응급실은 신경계 질환과 근골격계 환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sup>8)</sup>. 이와 같이 질환 분포에 있어서 양방병원의 응급실과 차이를 보이는 한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한 경향성의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방병원 응급실에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 장비, 시설을 구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저자는 기존 연구에서 한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의 16~37%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sup>3,8,9)</sup> 근골격계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방 응급실의 환자 실태 및 질환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대상 및 방법

서울 소재 모 한방병원에 2007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685명

중 근골격계 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내원한 경우, 음주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차트 기록이 미비한 경우를 제외한 1,4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자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후향성 조사를 시행하여 성별, 연령별, 통증 부위별 분포 및 내원 시간별, 요일별, 월별, 내원 방법별 환자 분포와 한방병원 입원을 등을 분석하였다.

## III. 결과

###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전체 성별 분포는 남자가 759명, 여자가 713명으로 남녀비가 1.06:1의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 분포는 30

Table 1. The Number of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Classified by Sex and Age

Age	Sex	Female	Male	Total
1~9		1	1	2
10~19		23	22	45
20~29		195	111	306
30~39		236	378	614
40~49		102	138	240
50~59		91	72	163
60~69		43	30	73
70~79		15	3	18
80~89		7	4	11
		713	759	1,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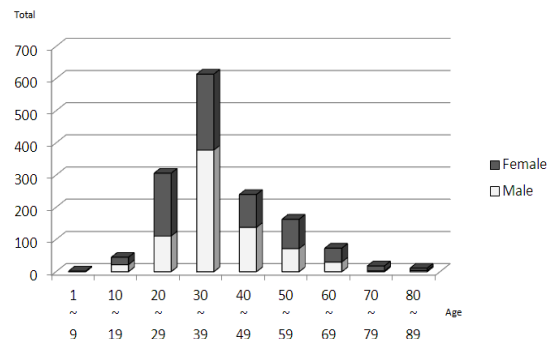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musculoskeletal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classified by sex and age

대가 614명(41.71%)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306명(20.79%), 40대 240명(16.30%), 50대 163명(11.07%), 60대 73명(4.96%), 10대 45명(3.06%), 70대 18명(1.22%), 80대 11명(0.75%), 10대 이하 유소년 2명(0.14%) 순이었다.

연령대별 성별 분포에서는 30대와 40대에서는 남성이, 20대와 50대부터 80대까지에서는 여성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Fig. 1).

## 2. 내원 시간대별 환자 분포

내원 시간대별로는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156명이 내원하여 10.6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환자가 내원하였고 오전 4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10명으로 0.68%를 차지하여 내원 환자 수가 가장 적었다. 주요 내원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특히 야간진료 시간(오후 6시부터 자정)에 환자 수가 평균치(61.33명)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분포를 보였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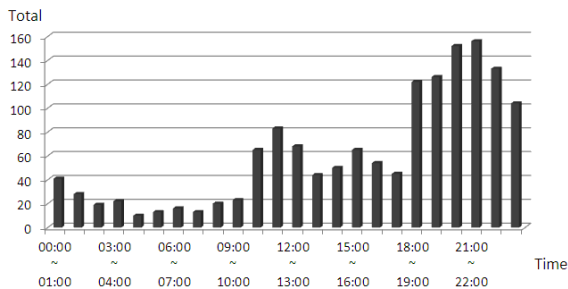


Fig. 2. Distribution of musculoskeletal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classified by visiting time

## 3. 요일별 환자 분포

요일별 내원 환자 수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누적 인원 수가 각각 261명과 265명, 그리고 249명으로 평균(누적인원 수 210.29명) 이상의 환자가 내원하였다. 목요일은 150명으로 가장 적은 환자 수를 보였다(Fig. 3).

## 4. 월별 응급실 내원환자 분포

월별 내원 환자 수는 1·3·6월과 8월에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2·4·9월과 10월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5·7월과 11월에는 평균값(약 122.7명)과 근사치를 나타냈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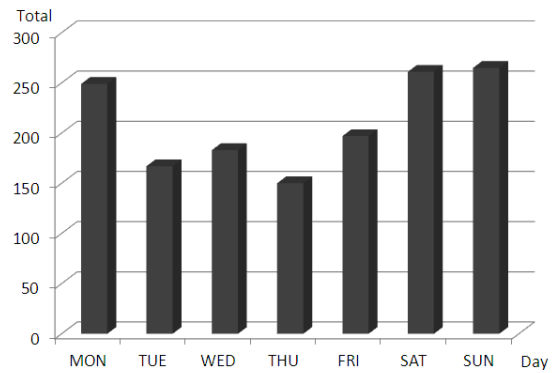


Fig. 3. Distribution of musculoskeletal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classified by day of the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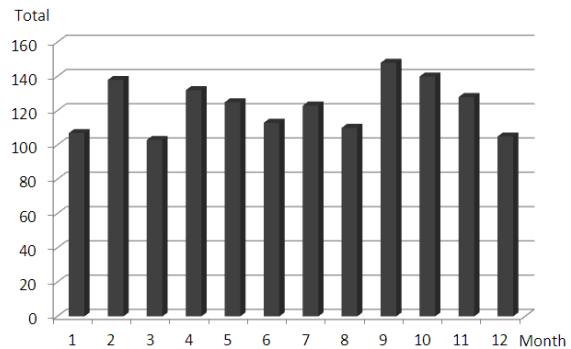


Fig. 4. Distribution of musculoskeletal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classified by month of the year

## 5. 발병 후 경과일 분포

발병 후 내원 시까지의 경과일에 있어서는 발병 당일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5.52%), 1일 경과 후(22.01%), 2일 경과 후(9.72%)가 각각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1달 이상 경과한 만성 환자의 경우에 증상의 악화에 따라 내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4.21%, Fig. 5).

## 6. 통증 부위별 환자 분포

통증 부위별 환자 수는 하지 방사통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요통이 954명(6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지 방사통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경항통 174명(11.82%), 족관절 통증 157명(10.67%), 기타 부위의 통증이 187명(12.70%)으로 나타났다. 기타 부위로 는 악·견·주·완관절, 그리고 슬관절 통증이 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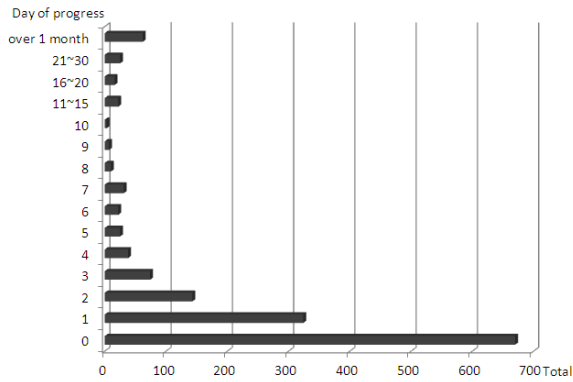


Fig. 5. Distribution of musculoskeletal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classified by days of progress

(5.50%), 하지부·족부·족지부의 통증이 51명(3.46%), 상지부·수부·수지부의 통증이 30명(2.04%), 협통과 둔부·배부, 그리고 미골부의 통증이 25명(1.70%)으로 나타났다(Table 2).

1) 통증 부위별 성별 분포

요통에서는 각각 남자 524명, 여자 430명으로 남녀비 1.22:1로 나타났다. 경항통에서는 남자 72명, 여자 102명으로 남녀비 0.71:1로 나타났으며, 족관절 통증에서는 남자 68명, 여자 89명으로 남녀비 0.76:1로 나타났다. 기타 부위의 통증에서는 남자 95명, 여자 92명으로 남녀비 1.03:1로 나타났다.

2) 통증 부위별 연령 분포

요통과 경항통에서는 20대부터 40대까지에서 15%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중 30대의 비율이 각각 44.13%와 43.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족관절 통증에서는 1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10% 이상의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30대의 비율이 35.03%로 높았다. 기타 부위의 통증에서도 20대부터 40대까지의 청장년층에서 15%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중 30대의 비율이 33.16%로 높았다.

7. 내원 방법별 환자 분포

내원 방법별 환자 수는 자가 보행으로 내원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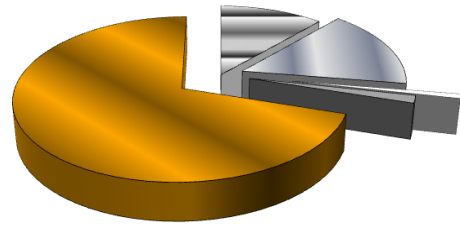


Fig. 6. Distribution of musculoskeletal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classified by visitation means

Table 2. Number of Musculoskeletal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Classified by Main Symptom

Symptom	Low back pain		Cervical pain		Ankle pain		Etc.	
	Count	%	Count	%	Count	%	Count	%
1~9	0(0:0)*	0.00	0(0:0)	0.00	2(1:1)	1.27	0(0:0)	0.00
10~19	15(10:5)	1.57	2(2:0)	1.15	16(5:11)	10.19	12(5:7)	6.42
20~29	182(75:107)	19.08	46(7:39)	26.44	36(14:22)	22.93	42(15:27)	22.46
30~39	421(269:152)	44.13	76(45:31)	43.68	55(29:26)	35.03	62(35:27)	33.16
40~49	155(95:60)	16.25	30(12:18)	17.24	21(8:13)	13.38	34(23:11)	18.18
50~59	105(49:56)	11.00	12(3:9)	6.90	20(10:10)	12.74	26(10:16)	13.90
60~69	56(22:34)	5.87	5(2:3)	2.87	6(1:5)	3.82	6(5:1)	3.21
70~79	13(1:12)	1.36	2(1:1)	1.15	0(0:0)	0.00	3(1:2)	1.60
80~89	7(3:4)	0.73	1(0:1)	0.57	1(0:1)	0.64	2(1:1)	1.07
Total	954(524:430)	100.00	174(72:102)	100.00	157(68:89)	100.00	187(95:92)	100.00

\* : Total number of patients(male : female).

가 1032명(70.11%)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한방병원의 응급차를 이용하여 내원한 경우가 169명(11.48%), 병원 외부의 응급차를 이용하여 내원한 경우가 236명(16.03%)으로, 응급차를 이용하여 환자 운반차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는 모두 405명(27.51%)이었다.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내원한 경우는 22명(1.49%)이었고,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해서 내원한 경우는 13명(0.88%)이었다(Fig. 6).

## 8. 한방병원 입원율

한방병원에 입원시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경우가 338명으로 22.96%이며, 치료 후 귀가조치 한 경우가 1,118명으로 75.95%를 차지했다. 그리고 양방병원 등 타병원으로 전원시킨 경우가 16명으로 1.09%를 차지했다(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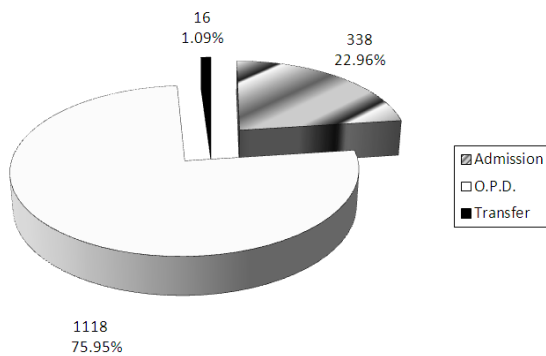


Fig. 7. Admission rate of musculoskeletal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of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 IV. 고찰

한의학에 있어 응급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黃帝內經·素問·熱論》<sup>10)</sup>에서 熱病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나, 《黃帝內經·靈樞·厥病》<sup>11)</sup>에서 眞心痛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張仲景은 《金匱要略》<sup>12)</sup>에서 심폐소생술을 自縊에 사용한 경험을 기록하였고, 葛洪은 《肘後備急方》<sup>13)</sup>에서 전문적으로 응급 질환을 기록하고 선인들의 경험을 총괄하였다.

역대 의서에서 나타난 응급병증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응급의료에서 한의학의 비중은

매우 작은 수준이며, 이는 양방의학이 전염병 퇴치능력, 수술을 위주로 한 외과적 치료,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조치의 우수성<sup>14,15)</sup>으로 중증 응급진료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방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질병양상을 분석하여 적절한 한방응급실 운영방침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3년간 한방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근골격계 환자는 1,472명으로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1,685명의 87.36%에 해당된다. 이러한 분포는 근골격계 환자가 전체 한방 응급실 내원환자의 16~37%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sup>3,8,9)</sup> 기존 연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연구가 진행된 한방병원이 추간판 탈출증 등 척추질환을 전문으로 표방하는 한방병원이기 때문에 내원환자의 편향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 성별 분포는 남자가 759명으로 51.56%, 여자가 713명으로 48.44%를 차지하여 남녀비가 1.06 : 1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0.94~1.07 : 1의 남녀비를 보인<sup>3,8,9)</sup> 기존의 한방응급실에 대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1.40~1.47 : 1로 높은 남성의 분포를 보인<sup>16,17)</sup> 양방 응급실의 연구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양방 응급실과의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인 활동이 많은 남자가 외상에 많이 노출되며<sup>16)</sup>, 외상처치는 양방 응급실에서 주로 전담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별 성별 분포는 30대와 40대에서는 남성이, 20대와 50대부터 80대까지는 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이할 만한 점은 없었다.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614명(41.71%)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306명(20.79%), 40대 240명(16.30%), 50대 163명(11.07%), 60대 73명(4.96%), 10대 45명(3.06%), 70대 18명(1.22%), 80대 11명(0.75%), 10대 이하 유소년 2명(0.14%) 순이었다. 이는 기존 한방응급실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로, 대학병원 한방응급실에서는 대부분 50대에서 70대가 주 연령층이 되고 특히 6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다<sup>8)</sup>. 대학병원 한방응급실에는 중풍과 구안와사 등 고령의 신경계 질환 환자가 주로 찾는데 비하여<sup>9)</sup> 본 연구는 대상을 근골격계 환자로 한정된 데서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양방응급실과도 차이가 있는 결과로, 양방응급실에서는 대부분 10대에서 30대가 주 연령층이 되고 특히 2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다<sup>16-22)</sup>. 20대와 같이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에서 외상 환자가 많이 발생하므로<sup>16)</sup> 수술 등의 외과적 처치가 요구되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들의 주요 내원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나타났으며 오전 4시부터 오전 5시까지가 가장 내원이 적었다. 일반적인 병원 외래진료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균 정도의 환자분포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급격한 증가분포를 보였으며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내원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기존의 한방, 양방 응급실에 대한 연구와 큰 차이가 없었다<sup>3,8,9,16,17,22,23</sup>). 오후 6시 이후부터 내원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유로 진료시간에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주간내원하는 환자가 외래진료로 흡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요일별 분포에 있어서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각각 17.73%, 18.00%, 16.92%로 평균 이상의 환자가 내원하였다. 주말에 평균 이상의 환자가 내원하는 것은 휴일 휴진으로 인해 외래 진료로 충분한 환자들이 응급실을 방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sup>8</sup>). 목요일에 10.19%로 가장 적은 수의 환자가 내원하였다.

월별 분포에 있어서는 1·3·6월과 8월에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2·4·9월과 10월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5·7월과 11월에는 평균값(약 122.7명)과 근사치를 나타냈다. 계절변화와의 연관성은 낮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을 찾기 어려웠다.

한편 발병 후 한방응급실 도착까지 경과일을 살펴본 결과, 발병 당일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45.52%), 1일 경과 후(22.01%), 2일 경과 후(9.72%)가 각각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1달 이상 경과한 만성 환자의 경우에 증상의 악화에 따라 내원하는 경우가 4.21%로 나타났다. 이는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42.08~62.54%의 환자가 내원한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가 없었다<sup>3,8,9</sup>).

환자들의 통증 부위를 살펴보면 요통이 64.81%로 가장 많았으며, 경항통과 족관절 통증이 각각 11.82%와 10.67%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악·견·주·완·슬관절 통증이 5.50%, 하지부·족부·족지부의 통증이 3.46%, 상지부·수부·수지부의 통증이 2.04%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영상의학적 검사를 거치지 않은 응급실 초진 증상이기 때문에 분류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요통에서는 남녀비가 1.22 : 1로 남성이 약간 우세했으며, 특히 30대 남성에서 높은 분포가 나타났다. 경항통과 족관절 통증에서는 각각 0.71 : 1, 0.76 : 1의 남녀비로 여성이 우세한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타 부위의 통증에서는 남녀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요통과 경항통에서는 20대부터 40대까지에서 15%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중 30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족관절 통증과 기타부위의 통증에서는 요통과 경항통에 비해 10대부터 50대까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내원 방법을 살펴보면 자가 보행으로 내원한 경우가 70.11%로 가장 많았다. 응급차를 이용해서 환자운반차로 내원한 경우는 27.51%였다.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자의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목발 등을 이용한 경우는 2.37%였다. 양방 응급실에서 구급차나 병원차를 이용하여 내원한 경우는 8.5~15.5%로 보고되었으나<sup>2,16</sup>) 본 연구와는 내원 규모, 내원 질환, 연구 시기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한방병원 입원율을 살펴보면, 한방병원에 입원시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경우가 22.96%였다. 반면 증상이 경미하여 치료 후 귀가 조치한 경우가 75.95%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입원율은 3차 양방병원에서 보이는 20~30%의 입원율과 유사한 수치이며<sup>16,17,18,21-23</sup>), 중풍 등 신경계 질환자가 많은 대학병원 한방응급실의 48% 입원율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sup>8</sup>). 그 외에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 처방을 원하거나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는 등의 이유로 양방병원으로 전원 시킨 경우가 1.09%를 차지했다. 양방 협진 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진통제 등의 사용이 어려우므로 급성기 근골격계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침과 엑기스 제제뿐만 아니라 압박 및 고정을 위한 장비나 한방 외용약의 구비, 그리고 약침<sup>24</sup>)이나 봉침<sup>25</sup>), 전침<sup>26</sup>)의 비치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방병원 응급실의 내원환자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질환 분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며,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은 16~37% 가량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3,8,9</sup>). 이러한 차이는 응급실 내원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 통계기준으로 한방병원의 뇌혈관 질환 관련 상병명의 진료일수는 546,790건, 총 급여비는 205억 원이며, 근골격계 질환 관련 상병명의 진료일수는 424,282건, 총 급여비는 135억 원으로 뇌혈관질환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2000년 통계기준으로 뇌혈관 질환 관련

상병명의 진료일수는 778,735건, 총 급여비는 159억 원이며, 근골격계 질환 관련 상병명의 진료일수는 190,682건, 총 급여비는 34억 원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진료일수와 총 급여비는 8년 사이에 각각 122%와 297% 증가한 반면 뇌혈관 질환의 진료일수는 30% 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방병원이 140개소에서 145개소로 증가한 반면 양방병원은 680개소에서 2,043개소로 200%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며<sup>27,28)</sup>,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한방 의료의 비중이 감소됨과 동시에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 한방 의료의 비중이 증대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한방 응급실의 장점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진료의 특성을 살린다면 향후 한방 응급실의 발전뿐 아니라 한방 진료에 전문성을 더하고 한방 의료의 대중화 및 치료의학으로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하나의 지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추간관 탈출증 등 척추질환을 전문으로 표방하는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환자군이 편향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응급실 내원 이후 환자 추적이 불가능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한방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근골격계 환자의 임상적 양상 분석을 통하여 환자의 기초적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향후 응급실 내원 환자 이후 병정을 조사하여 응급실 내 진료의 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V. 결 론

2007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약 3년간 서울 소재 모 한방병원에 내원한 근골격계 환자 1,472명을 대상으로 후향성 임상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성별분포는 남녀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614명(41.71%), 20대 306명(20.79%), 40대 240명(16.30%), 50대 163명(11.07%), 60대 73명(4.96%), 10대 45명(3.06%), 70대 18명(1.22%), 80대 11명(0.75%), 10대 이하 유소년 2명(0.14%) 순이었다.

2. 주요 내원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평균치 2배 이상의 내원 분포를 보였다.
3.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각각 17.73, 18.00, 16.92%로 평균 이상의 내원 분포를 보였다.
4. 1·3·6월과 8월에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2·4·9월과 10월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5. 발병 후 경과일은 발병 당일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일 경과 후, 2일 경과 후가 각각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6. 요통이 66.06%로 가장 많았으며, 경항통과 족관절통이 각각 11.82%와 10.67%로 그 뒤를 이었다. 통증 부위 별로 요통에서는 남녀비 1.22 : 1, 경항통에서는 0.71 : 1, 족관절통에서는 0.76 : 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요통과 경항통에서는 20대부터 40대까지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중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과부상근과 기타부위의 통증에서는 10대부터 50대까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더 높았다.
7. 자가 보행으로 내원한 경우가 70.11%로 가장 많았고 응급차를 이용해서 환자 운반차로 내원한 경우는 27.51%였다.
8. 한방병원에 입원시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경우가 22.96%이며, 치료 후 귀가 조치한 경우가 75.95%를 차지했으며, 타병원으로 전원시킨 경우가 1.09%를 차지했다.

## VI. 참고문헌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Available from : URL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199&PROM\\_NO=10219&PROM\\_DT=20100331&HanChk=Y](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199&PROM_NO=10219&PROM_DT=20100331&HanChk=Y)
2. 윤상섭, 최승혜, 박일영, 이성, 박승만, 임근우. 2차 의료기관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임상적 분석. 대한응급의학회지. 1997 ; 8(2) : 155-65.
3. 박성철, 진신영, 이수경, 문성원, 송용선. 한방병원 응급실 내원환자 1,278명의 통계적 고찰.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2 ; 12(1) : 173-86.
4. 이기호, 이문희, 최학봉. 응급실 내원환자의 분석. 가정의학과학회지. 1990 ; 11(11) : 28-34.



5. 김경환, 김홍용. 응급실 환자에 대한 분석. 대한응급의학회지. 1995 ; 6(2) : 381-7.
6. 도진문. 한방응급의학. 서울 : 일지사. 1999 : 13.
7. 이종길. 병원의 응급의료체계 완비, 무엇이 문제인가?-병원관리 측면에서 본 응급실 운영. 대한응급의학회지. 1993 ; 4(1) : 8-14.
8. 소형진, 류재환, 김영철, 이범준.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한방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임상적 분석. 대한한의학회지. 2007 ; 28(3) : 197-206.
9. 안정란, 차상철, 김철규, 이인선. 한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2,485명의 통계적 고찰-부산지역에 위치한 모 대학 부속 한방병원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2 ; 12(4) : 1-10.
10. 金達鎬, 李鍾馨 編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 醫聖堂. 2001.
11.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2.
12. 丁光迪. 金匱要略.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65.
13. 葛洪. 肘後備急方. 서울 : 醫聖堂. 1993.
14. 전세일. 동서의학의 협진방안. 제2회 한방병원학술대회 논문집. 1998.2(1) : 12-8.
15. 지제근. 동서의학 연구의 접점. 대한의사협회지. 1998 ; 40(3) : 288-90.
16. 민용일. 최근 1년간 응급실 내원환자 21,700명에 대한 임상적 분석. 대한응급의학회지. 1994 ; 5(2) : 356-64.
17. 박재황. 응급환자의 실태에 관한 연구-호남 서북부지역(이리, 익산, 옥구, 김제,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응급의학회지. 1992 ; 3(1) : 62-70.
18. 백광제, 박승희, 선경, 장연희, 엄병선, 홍윤식. 응급의학과 전공의 교육을 위한 제언. 대한응급의학회지. 1993 ; 4(2) : 138-47.
19. 강신녕, 남현, 정영숙, 정의식.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가정의의 일차 진료 내용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의학회지. 1990 ; 11(3) : 24 : 30.
20. 이명춘, 조종환, 김현철, 장민옥, 박혜순, 조홍준, 김영식. 의료전달체계 시행 후 3차 의료기관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대한가정의학회지. 1990 ; 11(6) : 29-38.
21. 이한식, 지훈상, 김병로, 이경식, 최근 1년간 21,652명의 응급환자 분석. 대한외과학회지. 1988 ; 35(4) : 371-9.
22. 정홍주, 안승재, 임희상, 조은준, 정중훈. 종합병원 응급실 내원환자의 진료내용에 대한 분석. 대한가정의학회지. 1991 ; 12(9) : 24-9.
23. 윤여규, 정연권, 윤효영. 3차 의료기관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분석. 대한외상학회지. 1994 ; 7(1) : 92-8.
24. 신민규. 21세기 한의학과 약침요법. 대한약침학회. 2001 ; 4(1) : 1-3.
25. 정선희, 이재동, 고희균, 안병철, 최도영, 박동석. 봉독약침이 척수내 통증 관련 신경세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침구과학회지. 2000 ; 17(2) : 153-68.
26. 박영배, 이윤호. 전침자극이 진통효과에 미치는 영향. 침구과학회지. 1988 ; 2(1) : 33-50.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연보. Available from : URL : [http://www.hira.or.kr/cms/rd/rdi\\_statistics/morgue/1175297\\_9014.html](http://www.hira.or.kr/cms/rd/rdi_statistics/morgue/1175297_9014.html)
2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건강보험통계연보. Available from : URL : [http://www.hira.or.kr/cms/rd/rdi\\_statistics/morgue/1195904\\_9014.html](http://www.hira.or.kr/cms/rd/rdi_statistics/morgue/1195904_9014.html)